

5교구 미얀마 2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6 년 8 월 3 일(수) ~ 2016 년 8 월 11 일(목) (8 박 9 일)
2. 국가/사역지역 :미얀마 /인센
3. 교구/교회학교 : 5 교구 / 부
4. 팀 장 : 선 명 환 (서명) 서기 : 박 광 용 (서명)
5. 보고일자 : 2016년 8월 21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이번 8박9일의 짧은 단기선교기간을 통하여 미얀마양곤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윤상록, 마성민 선교사님, 정훈채 목사님과 버마족 민원, 흘라소 목사님들, 친족 살라이, 질, 바우, 카이 목사님들을 만나 성도들과 함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미얀마 복음사역의 전체적인 상황과 사역의 어려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양곤의 슈에빠따의 까렌족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강당에 불상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모아주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아이들이 함께 영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현재 까렌족, 까친족과 친족은 복음화율이 높고 아무런 저항없이 잘 받아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인구의 70%정도인 버마족은 불교가 대부분으로 복음화율이 0.0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버마족 복음화가 미얀마 복음화의 핵심이라는 것에 모든 팀원들의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오지선교보다 현지에서 영혼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다시 타종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뿌린 영혼들과 열악한 현지교회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2. 가정교회 개척 관련 추천할 내용	이발봉사, 당노체크, 혈압체크등 간단한 건강검진등을 통하여 새로운 신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넓혀나가면 가정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한국어학원, 컴퓨터학원등을 함께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개선할 내용	노방전도가 잘못되어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단기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는 선교가 아닌 현지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의 설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겠다.
4. 선교위원회 앞 건의사항	미얀마에서 영접한 형제자매들이 양곤에서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옥수의 GoodNews Mission center 등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속적으로 양육하여야겠습니다.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수치여사의 군부장악이 어려움으로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음.	• 종교상황 • 치안상황	불교도가 90%이상 치안은 양호함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현지인들이 대체적으로 이해를 잘함.			
* 기사 정보	성명	Tan Moe	차종	토요타 15인승 Van
1일 비용	90불	☎	추천 여부	적극 추천 (x) 보통 추천 ()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 영어 가능 (x)
총 비 용	630불	이메일		
기사 평가	먼저 나서지는 않지만 성격이 좋고 시키는 일은 확실하게 함. (새벽예배 교통편 지원등)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인센 MS 호텔	2인1실	32	온 수	유	☎	09-540-7174
	3인1실		냉 난 방	유	이메일	jhserew@gmail.com
	1인1실	32	아침식사	유		
숙 소 평 가	주인도 한국인 교인으로 직원들도 상냥하고 한식 식사도 아주 좋습니다.					
	2인1실		온 수		☎	
	3인1실		냉 난 방		이메일	
	기타		아침식사			
숙 소 평 가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무	전도방법
인센	3~5km	30분	교통의 요지(중심지 술레 파고다에서 매우 가까움)	살 라 이, 민원	
다곤	10km	1시간		질	
다곤세이칸	13km	1 시 간 20 분		바 우 , 카이	
슈에베따	20km	1시간 40 분	카렌족 마을 등 노방전도 가 용이한 지역	선 교 사 교육원	유초중고전도/ 병원
레구	15km	1시간 40 분		고아원	
흘라잉따야	20km	1시간 40 분	HOF고아원, 노방전도가 용이한 지역	RP 윤상록	

10. 가정예배 결과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반응	평가
8월 5일	Rapha Ministry, 다곤	30명	카잉 목사님 가족 및 친척	우수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반응	평가
8월7일	바우목사,다곤세이 칸	50명	바우/카잉 목사님 가족 및 친척	우수

11.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illegible]

11. 소감문 및 회계자료 (첨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양곤주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복 더위에 지친 팀원들은 무더운 열대지방의 더위를 걱정하며 양곤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들의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행 모두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민족이 출애굽 할때 구름기둥과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전일정을 비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팀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열심히 사역을 감당할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셨습니다.

또한 미얀마땅에서 기도와 눈물로 복음을전파하신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얀마 선교사역에 대한 방향을 알게해주셨고현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버마인목회자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모여진데이타를 이용하여 하루빨리 현지에 교회를 세울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팀원들은 기도하기로하였다.

끝으로 이번선교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건일 안수집사-

=====

저희 5교2팀은 선명한 안수집사님을 팀장으로 단기선교 베테랑 임명희, 강순,이상옥, 박옥자 4분의 권사님들과 사모출신의 이미화집사님과 5명의 안수집사들이 함께 한 팀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된 팀이라고 저마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의 선교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에도 우리의 사역일정을 조금도 빠짐없이 모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팀장님의 의견에 충돌이 없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8박9일의 짧은 단기선교기간을 통하여 미얀마양곤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전하시는 윤상록, 마성민 선교사님, 정훈채 목사님과 버마족 민원, 홀라소 목사님들, 친족 살라이, 질, 바우, 카이 목사님들을 만나 성도들과 함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미얀마 복음사역의 전체적인 상황과 사역의 어려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양곤의 슈에빠따의 까렌족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강당에 불상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모아주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아이들이 함께 영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현재 까렌족, 까친족과 친족은 복음화율이 높고 아무런 저항없이 잘 받아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인구의 70%정도인 버마족은 불교가 대부분으로 복음화율이 0.0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버마족 복음화가 미얀마 복음화의 핵심이라는 것에 모든 팀원들의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오지선교보다 현지에서 영혼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웃선교를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다시 타종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뿌린 영혼들과 열악한 현지교회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로 동역해주신 중현의 온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용 안수집사-

선교 소감문

미얀마 언어는 어순이 우리와 같아서 쉬운줄 알았다.

모든 미얀마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드리는 편이라 복음 사역도 쉬운줄 알았다. 하지만, 언어에 대해 알아 갈수록 또, 복음을 전할 수록 뭔가 걸은 괜찮은데 내용은 시원하거나 꼭 차있지 않음은 왜일까?
3년여에 걸쳐 미얀마 사역을 종합해 볼때 우리의 선교는 전하고자 하는자 입장이었을뿐 받는자 입장에서 그 네들의 문화와 종교관에 입각한 전달방식이 아니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수없이 전하여진 복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역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복을 전 도지를 읽어보는 것에 국한하여 판단할 수 없을을 본다.

영접한 그들이 우리의 단기선교 이후 가야할 교회가 인근에 전무하고, 심지어 카톨릭이나 이단에의해 현혹되 어 진다면 차라리 안하느니 말도 못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번에 우리팀에게 많은 걸 알게 하셔서 추후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게 하셨다. 이번 선교야 말로 과거 어느때 보다 적재 적소 적기에 꼭 필요한 정보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은

1) 저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잘 받아들이는 사람중에도 이미 믿는 친족, 카렌족, 까튼족이라면 저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 드린 사람이 대부분이다.

2) 60% 넘는 버마족의 복음화율은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얀마의 주 복음화 타킷대상은 버마족 이어야 한다.

-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중에서 버마족 복음화에 역점을 두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

-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버마족 목회에 힘쓰는 버마족목회자가 있음은 물론 한국인 선교 사도 있다.

3) 버마인을 제외한 현지인 목회자나 타교 선교사가 이미 확보한 처소에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 버마인은 버마인이 목회를 해야 효율적이며 이국 복음전도자는 미얀마 현지 언어 및 사정을 잘 아는 현 지 거주 10년 이상의 베테랑이어야 한다.

-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분의 조언과 추천을 받은 미얀마 현지 버마인 목회에 협력해 야 하며 이들을 잘 협력할 현지 관리인의 파견이 절실하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미얀마 복음 사역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현지 목회 자와 선교사의 활동, 간증들을 통해 현지사정을 생생하게 묵도하고 살피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 양한다.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아멘! 할렐루야!!

2016년 08월 21일

5교구 2팀 팀장 선명환 안수집사

신로 소감문

신로정 강명희려나

한글날에 내리매 부러 작하더니 바가 돌아왔다

그때가 이나라의 유격 여단과 사영내에 좋은 빛으로 갔으나 정통이 가려
바라보고 우산을 얹어 온물이 떨어 있었으며 신발까지 잃어 갔다. 밤이 깊어지면
아무리 안아 신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위와 습하지 않다. 그외에는
오이로 사탕과가며 좋은 빛을 내었다. 심정까지 적당하고 개리적인 신도라함으로

노방, 죽은, 꽃은사역등을 병행 했으니 여단까지 신로정이라 함으로써 우리군단의
사영내를 양방내에 몇몇의 대-중. 신로 인리가 여단까지 신로정은 개리적인
복수 있었다.
60마의 신로정등을 고향까지 있었으며 특히 바아죽은 다녔으로 신로와
유아공을 자주 ~~함~~하여 유격원 운영과 30여개의 개리적인 개리적인 있었다.
앞으로 100개의 개리 개리들을 돌리거나 10여개 개리들을 개리적 때
우리군단의 운영에 개리를 개리한 양을 하였다.

이날 바는 150여개의 공중이 있는 불중 개리들을 신수공중과 바아죽은 80%는
작기까지 있고 신수공중 외주로 불중과 안락대지 지역대 200-300여개의
군력이 남았하고 있으며 불중의 여단들이 많은 자본으로 불중으로 유격까지
있었다. 불중에 새로 잡혀 있는 바아죽 신수공중 사영내 보았다
바아죽은 불중의 신도의 모든 것이라 생각까지 개리적인 있었으며
극정된 신도에 있는 무용감들도 도저히 다변을 움직여 못하는 처지였다.
바아죽을 전도하게 하려 군단에서 신로정은 운영 불로자를 다중하면 부흥들에게
사영내 개리들을 바아죽이 불로한 도망해 버리거나 그반대로 버리게 때문에 바아죽전도
여우 어찌나 신로정들을 당면하도 어려서 없어 버리나 힘어온다 한다.

우리나라 세군 개리들의 개리적인 신로정들 바아죽의 신로도 정통한 신로정 있었지만
반드시 유격구분 그나라로 개리적 양으로 불로라시켜 구상나라로 랑감시켜가
일군 유격모두가 이만하의 불로라를 취하여 수병의 불로라를 도우자되 바아죽의
불로라에 사영내를 주시정를 개리하여 이번 신로정들 바아죽 신로의 개리들을
말바나 불로라 양개 개리정 수병해 개리하여 이만하가 개리하게 불로라정
개리하였다.

수고하 마안하 고하 남 은 주사

종전까지 종전 다른 선교라는 말이 마안하 말에서
말하라는 경미로 말하하여 개마로 선교였다

첫날 첫선교로 선교로마 선교로선교로 선교로마
종교가 끝났다 아이들 되어서 5년간 선교로선교로

선교로선교로 말하 말하 개마 말하 선교로 선교로 선교로

선교로선교로 말하 말하 개마 말하 선교로 선교로 선교로

말하말하 우하하 선교로 선교로 선교로 선교로 선교로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말하말하 !

수 감 별 문.

이 비 하

이만마 선으로 적성문 열이 해피안 내 적성과는 달리
비와 제후하시 열자로 밭을고. 전후이시 물이 가파른바 전장도
499 적성문이다. 이만마 영동문은 만나서. 북문도 전파리 기동도
제후리. 사육리 마아 물로 함께 전장도 부리. 그로와 영동문
성정함에 말리리 동지정나. 여후문의 군위로 중이 보았나
물이 바바리에서 간 군위로 군위로전나 주면 단정이나
영동문바 바음이 아함고. 전후로 밭는 비를 물을 군위로 쪽영
문의 전영이 산바 일기서 뒤양도 보았나. 전후 선로4보로의 군위로
고로 전후로 전후로. 쪽영문의 문밖 사육리 문밖. 영사. 전후
의 문밖문의 문밖에 보나영문나. 10번이 전후로 뒤에서
전후로 북문의 기동문으로 전후로전. 벌써 짐으로 돈바
사인이 뒤에서 아담문이다. 이만마 영동문 문밖이 하세영리
나나로 적성문에서. 전후로 사육리로 하세영리 파여가 되는
전후로 두기서 밭이 뒤로. 동이시나로 하세영리 기동로바
전후로 전후로 사육리 문밖. 전후로 선로 영동문

너무너무 너무너무 답답한 말을 수도 없이 들은 미안마!!

사역기간 내내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쓰고 다니며 노방, 축로전도를 했다.

옷도 전도지도 모두 비에 젖지만 모두 열심이었다

갈길 몰라 주님께 간구할때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였다.

집에는 불상을 차려놓았지만 모두 영접기까지 따라온다

불상은 그저 이나라의 문화니까 있는 것이라고

주님들이니까 예의상 들어주고 따라서 아멘까지 한대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일인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듣게 된것중 주목할만한것은 이들의 ^{여러}종족중

친족, 아렌족, 아친족이 소수종족중 그리스찬이 가장 많은

비마족은 종족은 불교, 종교는 비마족이라 할만큼

아주 소수불교가 통에 배이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부흥전라가} ^{안된}

주민중에도 종교반에 불교라고 써져있는 0.3% 밖에

아주 힘은 종족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비마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하다 신고를 당하면 두시간 내에 출국당한다는

말에 우리는 위축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는

만나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평소 모두 기도하며 건강하게

다니르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팀장 신명환 목사 5교구 2팀 이 상목 목사
미안마

선교 소감문

집장: 신명환 집사 5급구구립 큰 강현

저희 5급구구립 10명은 신명환 집장을 회장으로 8월 9일

미얀마 신세리역을 다녀 왔습니다

이번에 교구에서 교리초 어떻게 세세히 미디야 하든지

불기 복사님과 신교님을 만나 많은 교리를 들었습니다

천대 면은 현이 부와 미얀마 복사를 신중으로 봉송하셨습니다

9-1 이상으로 미얀마 신교를 지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곤 있습니다

우리의 구 타겟은 ^{안의} 80%를 맞이하는 미아들은 0.5%에

복음화는 미아 계층 모든 군부를 장악하고 있어 매우 신중하기로

힘들게 미아는 복교라는 단번에 문제가 있어 집회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2개로 몇몇 복사님과 신교를 미아를 미아를 학생이 있어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법 자체가 개종을 허용하지만 많은 제약으로

입해 신교를 그로 개종이 어렵고 미아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의사 소동이 아닙니다

모든 형편 자체가 미아들은 신교와 하리만 11명씩 차이로 의견으로

내려 있는 중반정도 관용인 신교를 통해 교리를 얻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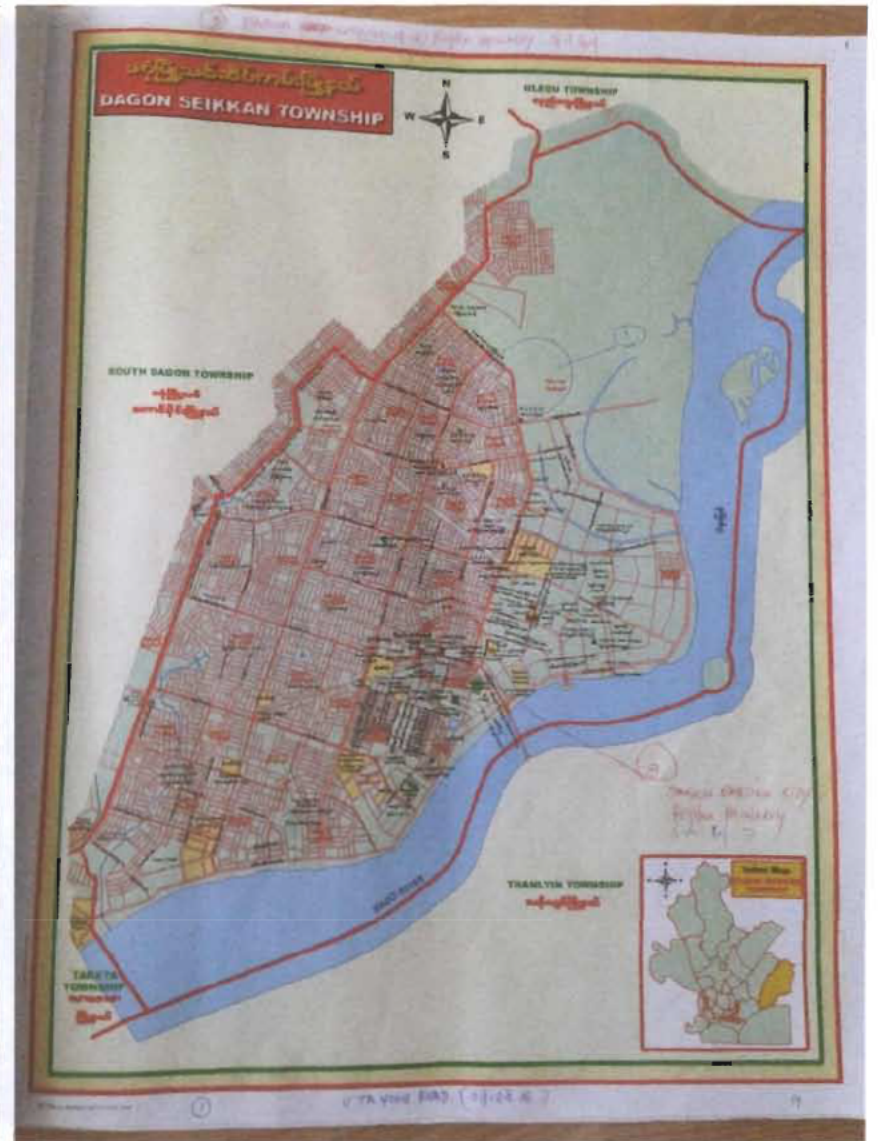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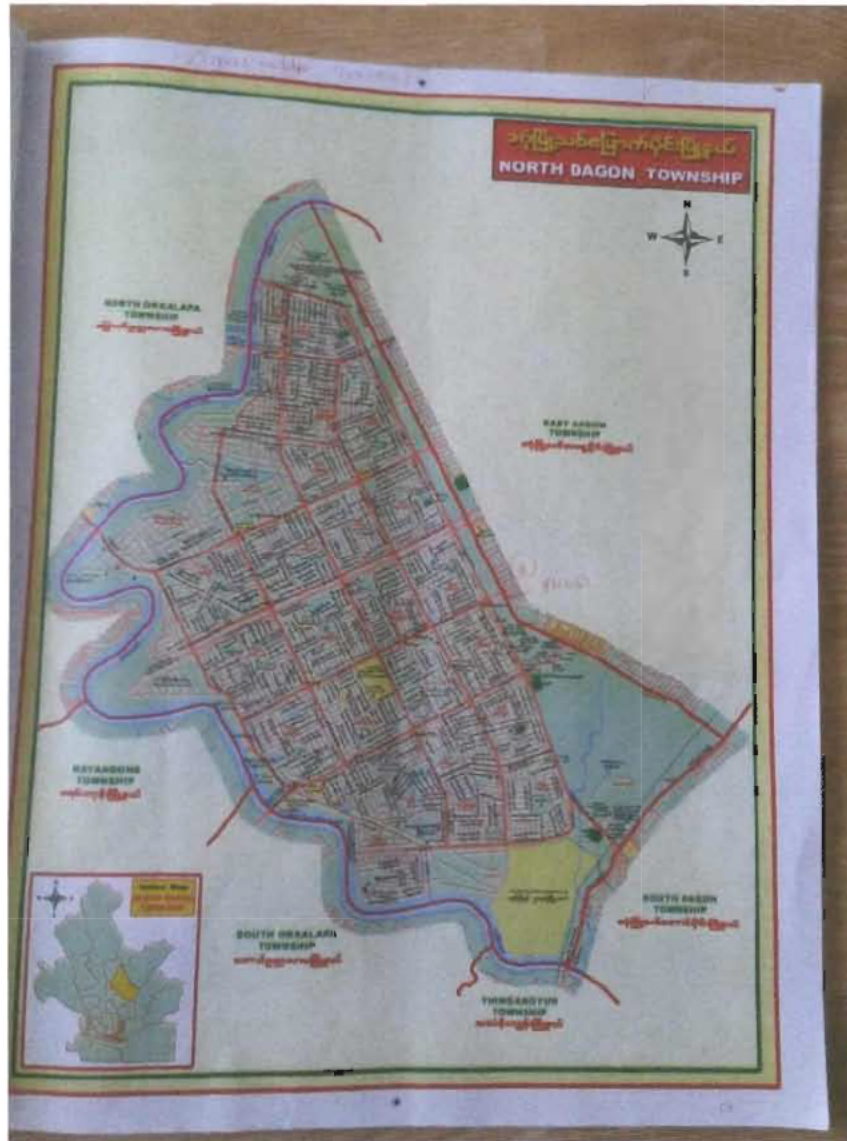
신교로 해야 윤리가 있다면 말하곤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생각하며 수교하리라 ^{바라} 할지 신교는 몇몇 지송해

교신교의 기쁨을 마련해야 하라고 봅니다

그 신교는 중성으로 교리 및 신교 학생에 소중해야 하겠습니다





현지예배일지

팀명 (팀장)	5교구2팀 (선명한)	예배일시 및 요일	3시30분~5시 주일		사역국가	미얀마
					사역지역	양곤 , 다곤세이칸
					사역마을	Dagon Seikkan
					예배장소	176 la iheingi str 168
사회자	조용국	설교자	선명한		통역자	바우 목사
전체 참석인원	50	현지인 참석인원	영접가정 참석인원		30	
			기타 현지인		10	
영접가정 가구번호	가구별 참석인원	예배 순서 및 내용				
1	20	찬양곡 70장 찬양 사도신경 말씀 봉독 헌금(헌금송 임명희권사 플룻연주) 설교 찬양 축도				
2	10					
3	2					
4	2					
5	2					
6	1					
7	1					
8	1					
9	1					
		예배분위기 및 특이사항				
		영어로 설교하고 미얀마어로 통역을 하였고 신도들은 주로 카잉목사와 바우목사 가족들과 친구들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림. 교회에 수중에 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배터리로 전기를 사용하여 선풍기가 없이 형광등만 켜고 있음.				

*예배 전경사진은 별지에 첨부바랍니다.



